

[기획]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2) 광주지역 문화 나눔 실태



기분 좋은 나눔 위해선 더 큰 '배려'를

연극인 양정인(35) 씨는 3년째 아동보육시설에서 '문화나눔 캠페인'로 활동하며 아이들에게 연극을 가르치고 있다. 양 씨는 현장학습 시간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등의 작품을 감상하기도 했다.

"좀처럼 접할 수 없는 좋은 공연을 보고 돌아올 때면 아이들이 정말 달라지는 게 눈으로 보여요. 큰 감동을 받고 정말 행복해 하거든요. 연극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도 확실히 달라지고,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에게 한편의 공연이 주는 감동이 쉬 잊혀지지 않는거죠."

양 씨는 "2006년까지만 해도 현장 학습 기회가 3회씩 제공됐는데 지난해는 1회로 줄어 아쉽다"고 말했다.

십만원 넘은 공연 티켓이 날개돋힌 듯 팔려나가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영화 한편 보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2006년 김희선 의원이 시민 1천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월소득 250만원 이하인 소득하층의 71.1%와 60세 이상 74.1%는 1년간 미술 전시회와 영화·공연 관람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의 경우 따로 통계가 나와 있지만 전국적인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책 많지만 예산 미미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은 공연과 전시 등의 관람을 지원하는 것과 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두가지로 나뉜다.

광주시는 2008년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금액으로 9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50대 50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1억2천만원의 지원한다. 문화 관련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액수에 그쳐 아쉽다.

2007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풍물놀이패 '굴림'의 '일찌규 노인 국악대학 등 모두 19개의 프로그램이 선정됐으며 올 공보 결과는 10일 발표된다.

광주에총이 위탁받아 진행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경우 지난해 23개 공연예술단체가 100만원~200만원을 지원받아 52개 사회복지 시설에서 공연을 가졌다.

광주문화예술위원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문화바우처의 2007년 예산은 8천700만원으로 약 6천5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1인당 이용 금액이 5만원으로 중복 신청을 감안하면 혜택을 받은 수는 3천여명 정도로 머물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경우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도 기초생활수급자만 6만 777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혜택을 받고 있는 숫자는



미미한 편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아동보육시설과 노인·장애인 복지기관에 전문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노인복지시설은 광주북구 노인종합복지관 1곳이 지원을 받았으며 장애인 복지기관의 경우 한건도 선정되지 못했다.

그밖에 광주시립합창단 등 6개 시립예술단체들은 '찾아가는 예술단'을 통해 매년 90곳의 학교와 소외시설을 방문, 공연을 펼치고 있지만 개인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눔 없는 객석에 커지는 격차

타 지역의 경우 공공 문화예술 기관과 개별 문화단체 등이 객석 나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광주는 볼모지나 다름 없다.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은 개관 당시부터 소외계층을 위해 '5% 객석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40여회에 달하는 기획 공연을 무대에 올리다보니 혜택을 받은 인원만 연간 5천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열린 나운성 콘서트를 기획 공연으로 준비한 광주비엔날레는 이주여성 등 소외계층 500

여명을 초청했다. 아쉬운 것은 기획 공연이 연 2회에 머물다 보니 '단발성 행사'에 그치고 만다는 점이다.

우선 기획 공연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시립교향악단 등 시립단체들을 객석 나눔 운동에 적극 동참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6개 예술단체가 진행하는 연간 공연이 90여회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객석 나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특히 시설 위주로 지원되는 관행에서 벗어나 지원의 시각 지대에 있는 비인가 시설이나 개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 광주국제공연예술제와 광주정음성극제 음악제 등 시 주관 행사의 경우도 일정 객석을 소외계층을 위한 좌석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광주시 산하 단체들이 먼저 앞서 나갈 경우 일반 극단이나 연주단체 등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했을 수 있을 것이다.

광주문화예술위원회 정혜영씨는 "광주시립단체나 일반 문화예술단체들의 일부 좌석을 무료로 확보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이 문화 나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타 지역 '객석 나눔' 운동
5% 소외 이웃에 기부... '천사관람제'도

객석 나눔 운동은 대체로 세종문화회관은 서울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연간 공연 중 객석의 5%를 소외된 이웃에게 기부하는 '사람의 객석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국립극장은 객석의 5%를 아름다운 재단에 기증하고 있으며 부산시문화관 역시 객석 나눔 운동을 전개중이다.

그밖에 동송아트홀은 아름다운 재단에 매 공연마다 일정 좌석을 기부하고 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등 서울시 산하 단체들

도 서울복지재단과 사람의 좌석 나눔 운동을 진행중이다. 일반 극단들의 나눔활동도 활발하다. 김민기씨가 이끄는 극단 '화산'은 지난 2003년부터 '지하철 1호선'의 객석 일부를 기부하고 있으며 뮤지컬 '심글즈'의 제작사 역시 객석 나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그밖에 티켓에매 사이트인 티켓링크도 개인이나 기업의 후원을 통해 평소 문화공연을 접하지 못하는 전국의 비영리 어린이 보호단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천사 관람제'(angel.ticketlink.co.kr)를 운영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지난해 장기 공연된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함께 공공기관과 예술단체들의 객석 나눔 운동 등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006년 열린 광주비엔날레 모습.

일가공인중개사
☎(대)234-8216
상가건물 매매
토지매매
전원주택
기타부동산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목적탕 임대 급히 구함
시의 분양부지 급히 구함
< 상가 건물 구매 >
< 수익성 좋은 원룸 >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건물
방
주요 부동산 전문중개
12억 원의 의원용 건물 구매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최고의 수익 물건 [공동투자] 하실분을 찾습니다.
근린시설/ 원룸상당
호텔/근린상가 상당
아파트/빌라 상당
오족수집당
상가주택 상당